"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길"

5 · 18 민주유공자 故임균수 열사 부친, 원광대에 무등 · 경산 장학금 기탁

5·18 민주유공자인 故임균수 열사의 부친 임병대 씨가 '무등・경산장학금'으로 200만원을 원광대에 전달하고, 매년 200만 원 기탁을 약정했다. 무등・경산장학금은 아들의 중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임병대씨가 아들 몫의 보상금과 사재를 털어 설립한 장학회로 1987년부터 매년 100만 원씩 장학금을 기탁해 아들의 모교인 원광대 한의대 학생들에게 전달돼 왔으며, 현재까지 누적금액이 3,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 장학금 기탁을 위해 18일 오후 총장실을 방문한 임병대 씨는

"올해부터 100만 원을 더해 매년

200만 원을 기탁하겠다"며, "이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이 돌아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가 나이가 있는 만큼 앞으로 큰아들이 장학회를 이끌도록 해 지속적으로 장학금 기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종 총장은 "오랜 세월 잊지 않고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정성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탁된 장학금이 임균수 열사의 희생을 기 리고, 기탁해주신 가족의 뜻에 따라 올바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완산구 해바라기 봉사단, 소외이웃 150세대에 밑반찬 전달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회장 조언자)은 18일~19일 이틀동안 준비한 밑 반찬을 홀몸어르신, 거동 불편한 장애인, 부자세대 및 경로당 등 관내 150세대에 전달했다.

조언자 회장은 " 맞춤 건강식 반찬을 통해 흘로어르신, 중증장애인 등의 건강을 챙겨드릴 수 있어 보람된다"며 "앞으로도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은 늘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전도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덕진구 - 동현교회 - 전주대, 관내 어르신 초청 행복나들이

덕진구(구청장 정태현)는 동현교회(담임목사 이진호)·전주대학교(선교봉사처장 양병선)의 지원으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월2회 관내 어르신들과 지원봉사자 등 40명이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나들이'행사를 실시했다.

행복나들이는 평소 비깥나들이가 쉽지 않은 홀로어르신 등 소외계층에게 유적지, 건강 명소 나들이를 통해 문화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태현 덕진구청장은 "매회 나들이 때마다 어르신들을 더 편안히 모시기 위해 애쓰시는 동현교회와 전주대학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더 많이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ww.jjmaeil.con

중앙지사 010-9088-6874

인후지사 246-6855

송천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445-0157

익산지사 858-9923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7-8855

완주지사 246-6855

남원지사 632-0995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전주매일

전주지사

삼천지사

010-9645-4113

010-2333-4791

서신지사 272-9417

효자지사 010-8645-9935

회장 김조웅

/김영재 기자

고창지사 563-6999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6157

무주지사 010-2300-4253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プ 전주대학교 | 정교육과 교수회 발전기금 전달식 5 2016. 10. 19.(수) 14:30 |
|-------------------|--|
| | |
| Plac | रू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주대 가정교육과 교수, 12년째 제자사랑 장학금 전달

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들이 12년째 제자들을 위해 선행을 베풀고 있다. 19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날 가정교육과 왕석순 \cdot 임양미 \cdot 남수정 \cdot 정은영 교수 등은 720만원의 장학금을 학교측에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정교육과 교수들은 학생들의 자긍심 및 민족도 항상, 학업성취도 제고 등을 위해 매년 발전기금을 모아 성적우수자와 학생회 임원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실제 가정교육과의 교수 장학금은 지난 2005년 4명의 학생에게 120만원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매년 100만원 이상을 기부했다.

2011년부터는 동문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2300만원의 장학금이 학생 들에게 지급됐다. /김민근 기자

본사 내방

▲진 홍 전북도 정무부지사



사랑의 열매 정읍시봉사단, 저소득층에 '행복꾸러미' 전달

'사랑의 열매 정읍시봉사단(단장 박춘성, 이하 정읍봉사단)'은 19일 정읍시 봉사단 사무실 앞 광장에서 봉사단원 10명, 읍면동 복지담당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꾸러미' 전달식을 가졌다.

정읍봉사단은 2천100만원 상당의 라면과 화장지(30톨)를 1세트로 묶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440세대를 방문하여 전달했다.

정읍봉사단은 매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다양한 내용의 생필품과 김치, 밑반찬 등을 지원해왔다.

한편 정읍시봉사단은 1인 1구좌 기부자 발굴 캠페인과 착한가게 업소 발굴 운동과 더불어 꾸준한 봉사활동을 전개해왔다. 정읍봉사단은 "앞으로도 외롭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정읍시 봉사단

성급용사단은 앞으로도 외롭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성급시 동사단으로서 저소득층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기었다. /정읍=김대환기자

진안 상전면 김공흠씨, 불우이웃돕기 쌀 기탁

진인군 상전면 출신 김공흠(57, 창원거주)씨는 19일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백미 500kg을 상전면사무소와 주민생활지원과에 기탁했다.

김공흠씨는 고 김재림씨의 이들로, 고 김재림씨는 돌아가시기 전 10여 년 동안 해마다 불우이웃을 위해 백미를 손수 기탁해 왔었다.

김공흠씨는 "아버지의 뜻에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나눔 활동을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환 상전면장은 "기부는 받는 사람은 물론 주는 사람에게도 큰 행복을 준다."며 기부자의 뜻을 받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